

‘朴堤上 이야기’의 受容 樣相과 그 意味

- 人物形象을 중심으로 -

엄기영*

1. 문제 제기
2. 규범화된 유교 윤리의 담지자 - 漢詩
3. 희생을 강요받는 민중의 형상 - 傳說
4. 국권 수호의 상징 - 애국계몽기 기사
5. 맺음말

1. 문제 제기

‘박제상 이야기’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등의 史書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대부의 漢詩, 傳說, 愛國啓蒙期 歌辭에도 등장한다. 이렇듯 ‘박제상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남은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주는 감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제상 이야기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이들 사서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에 따라, 담당 계층에 따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고려대 박사과정

1) 박제상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통칭할 때는 박제상 이야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두 사서의 특징을 구명한 바 있다. 그 결과 『삼국사기』 「박제상전」에서는 단순히 박제상의 충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辯士로서의 능력 발휘를 중심으로 사건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의 충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恨이 강하게 드러나며, 강한 정서적 충격을 주는 사건 서술의 이면에는 흥미성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 이에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박제상 이야기」가 이후 각 양식에 따라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2. 규범화된 유교 윤리의 담지자 - 漢詩

현재 필자가 각종 논문과 색인집을 참조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인물들 중에서 박제상 관련 작품을 남긴 사람은 모두 23명이며, 작품은 34편이다.³⁾

2) 이에 대해서는 줄고, 『三國史記』·『三國遺事』所載 「朴堤上 이야기의 比較考察」,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참조.

3) 이는 현재 영인된 개인 문집과 자료집에 한하여 조사한 것이다. 좀더 조사하면 작자와 작품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명은 다음과 같다. 金宗直(1431~1492), 崔溥(1454~1504), 成汝信(1546~1632), 沈光世(1577~1624), 趙綱(1586~1669), 尹順之(1591~1666), 金世濂(1593~1646), 黃痺(1604~1656), 任相元(1638~1697), 李衡祥(1653~1733), 李宜顯(1669~1745), 李灑(1681~1763), 吳光運(1689~1745), 李匡師(1705~1777), 趙宗鉉(1731~1800), 金壽民(1734~1811), 李令翊(1738~1780), 李學遠(1770~1835), 梁進永(1788~1860), 李裕元(1814~1888), 金圭泰(미상. 조선 중기로 추측됨), 李福休(미상. 영조 이후로 추측됨), 鄭在燦(1879~1950).

이들 작품을 一瞥하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중심인물에 따라, 박제상을 중심으로 한 작품, 박제상 부인을 중심으로 한 작품, 늘 지왕을 중심으로 한 작품 등이 그것이다.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한 작품씩 살펴보도록 하자.

汝何人	너는 어디 사람이냐?
鷄林臣	계림의 신하이다
來何意	무슨 의도로 왔느냐?
王弟事	왕의 아우에 관한 일로 왔다
主憂臣當辱	주군의 근심, 신하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니
白刃亦可蹈	번쩍이는 칼날도 밟을 수 있고
湯鑊亦不避	물 끓는 가마솥도 피하지 않네
王心載悅臣已矣 ⁴⁾	왕의 마음이 기쁘다면 신하는 그만이라

인용한 것은 심광세가 지은 <鷄林臣>이라는 작품으로,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박제상을 중심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詩化한 것이다. 이는 심광세의 시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아니라, 박제상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박제상이 중심이 된 작품에서는 『삼국유사』의 고문 장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⁵⁾ 그 결과 『삼국사기』에서 그려졌던 박제상의 辯士로서의 능력은 전혀 부각되지 않으며, 오로지 임금에 대한 그의 충만이 강조될 뿐이다.

鶻述嶺頭望日本	치슬령 꼭대기에서 일본을 바라보니
粘天鯨海無涯岸	하늘과 맞닿은 넓은 바다뿐 끝은 보이지 않네
良人去時但搖手	낭군께서 가실 때 손만 흔드시더니

4) 沈光世, 『休翁集』卷三(『韓國文集叢刊』84, 민족문화추진회, 1988. 349~350면).

5) 趙綱, 尹順之, 金世濂, 黃痺, 趙宗鉉, 金壽民, 李學遠, 鄭在麟 등의 작품이 포함.

生歟死歟音耗斷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끊어졌네
音耗斷 ⁶⁾ 長別離	소식도 끊기고 이별한지 오래되었으니
死生 ⁷⁾ 寧有相見時	죽었거나 살았거나 언제 다시 만나겠는가
呼天便化武昌石	하늘을 부르며 망부석 되니
烈氣千載千空碧 ⁸⁾	열녀의 정기 천년이 흘러도 푸른 하늘에 닿아 있네

위의 작품은 김종직의 <鵝述嶺>이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차용했으면서도, 박제상 부인의 恨과 밀접한 伐知音⁹⁾, 長沙¹⁰⁾ 등의 지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박제상 부인의 일을 열녀의 대표적인 예인 武昌 지방의 망부석에 비유하여 烈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경향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앞부분에서는 恨을 얘기하다가도 뒷부분에 가서는 烈로 귀결되는 구성을 보인다.¹¹⁾

常棣花	상제화
隨風落扶桑	바람에 날려 부상에 떨어지니
扶桑杳杳音信隔	부상은 아득히 멀어 소식은 끊어졌네
一札誰復遠于將	한 장 편지 누가 다시 멀리 가져가리
常棣花	상제화
隨風落鷄林	바람에 날려 계림에 떨어졌네

- 6) 『歌謠樂府』(『漢文樂府·詞 資料集成』7, 계명문화사, 1988. 151면)에는 이 句가 없음.
- 7) 『歌謠樂府』(앞의 책, 151면)에는 “生死”로 되어 있음.
- 8) 金宗直, 『佑畢齋集』詩集卷三(『韓國文集叢刊』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228면).
- 9) 제상이 왜로 떠나자, 그 부인이 바닷가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
- 10) 제상의 처가 모래 위(沙上)에 드러누워(放臥) 길게 부르짖었다(長號는 데서 유래한 지명.
- 11) 李漢의 <鵝述嶺>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앞부분에서는 “충신의 아내 되지 말지이다(有身莫作忠臣婦), 남편은 떠나서 仁을 이루지만 아내는 의지할 곳 잃었네(夫去成仁婦失依)”라며 원망과 한이 섞인 정서를 표출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충신과 열부(두 사람 모두) 절의를 온전히 함이 드물다네(忠臣與烈婦 節義雙全稀)”라는 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

鷄林闕下春風滿
友于深情如海深

계림 대궐 아래 춘풍이 가득하니
형제의 깊은 정 바다처럼 깊네

위의 작품은 李衡祥의 <憂息曲>이다. 그리고 본문 중의 “常棣花”는 『詩經』 <常棣>에서 유래한 것이다. 『詩經』 <常棣>는 형제간의 우애를 노래한 작품인데, 이형상이 이 작품을 인용한 것은 『삼국사기』와 관련이 깊다. 『시경』에 <常棣>외에도 형제간의 우애를 노래한 작품이 있는데도, 굳이 <常棣>를 인용한 것은 『삼국사기』 「박제상전」에서 박제상이 고구려왕을 설득할 때 <常棣>의 한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이다.¹²⁾ 그리고 <상체>의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삼국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놀지왕이 두 아우를 신라로 데려오려 했던 정치적 배경의 문제는 묻혀진다. 이형상이 놀지왕을 보는 관점은 이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위 작품에서 놀지왕은 ‘깊은 형제애’를 지닌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박제상 이야기’가 한시의 소재로 채택되면서 주요 등장인물인 박제상, 박제상 부인, 놀지왕은 각각 忠, 烈, 憐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놀지왕의 위상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박제상과 그의 처는 애초에 忠과 烈의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 특히 『삼국유사』의 경우 - 그 자체로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놀지왕의 경우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그려진 놀지왕의 모습이 그의 우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는 하지만, 이처럼 비중 있게 받아들일 만큼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제상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11편, 놀지왕과 박제상 부인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각

12) 遂以聘禮入高句麗, 語王曰 “臣聞交隣國之道, 誠信而已. 若交質子, 則不及五, 誠末世之事也. 今寡君之愛弟在此, 殆將十年. 寡君以 舊讎在 原之意, 永懷不已. 若大王 惠然歸之, 則若九牛之落一毛, 無所損也. 而寡君之德大王也, 不可量也. 王其念之.” 王曰 “諾.” 許與同歸.

각 11편, 12편으로 거의 같다. 즉 눌지왕과 박제상 부인이 비중 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제상과 동등한 무게를 갖고 그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수용 양상을 보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박제상 관련 한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倭에 대한 적개심은 고사하고, 단순한 반감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작자들이 임진왜란을 직접 겪었거나, 또는 임진왜란 이후에 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점이다. 왜 이들은 倭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관심했을까?(또는 무관심한 듯 보이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들의 시선이 ‘외부’가 아닌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능할 듯 하다. 즉, 이들 작품이 외부의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대상으로 유교 윤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내면 윤리를 부각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들의 시선이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을 향해 있음은 다음의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朴堤上死千年事
蠻貊猶傳不朽名
東海波衝精衛石
西天血帶杜鵑聲
聞道泛翁曾到此
維舟前浦面無頰¹⁴⁾

박제상이 죽은 것은 천년 전 일이거늘
오랑캐 땅에도 전해져 그 이름 변함없네
동해 바다의 파도는 정위석을 머금었고
서쪽 하늘엔 두견새 피맺힌 울음소리 걸려 있네
듣건대, 범옹이 이곳을 지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배가 포구에 다다랐을 때 얼굴 붉히지 않았으랴

13) 후술하겠지만, 漢詩의 이러한 특징은 4장에서 다룬 애국계몽기 가사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점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4) 趙綱, 『龍洲遺稿』卷二十三(『韓國文集叢刊』90, 민족문화추진회, 1988. 425면).

인용한 작품은 趙綱이 博多浦를 지나면서 지은 것이다. 『동사강목』에 의하면 박다포는 일본 西海道 肥前州에 있는 곳으로 霸家臺라고도 하는데¹⁵⁾, 이 곳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박제상이 죽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작자는 이 곳에서 박제상을 떠올림과 동시에 그를 申叔舟(泛翁은 그의 字)와 비교한다. 그리고 鄭夢周를 언급하기도 한다.¹⁶⁾ 조경은 임진왜란을 직접 겪은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생년(1586년)으로 보아 이 작품은 그가 임진왜란을 겪은 후 지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곳을 지나면서 떠올리는 것은 倭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세조의 왕위 찬탈에 가담하여 영화를 누린 신숙주와 쓰러져 가는 고려 왕조를 위해 절의를 지킨 정몽주이다.¹⁷⁾ 즉 그의 시선은 오로지 개인의 내면을 향해서, 그것도 규범화된 유교 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들 작품에서 그려지는 忠, 烈, 悌를 개별적이면서 파편적인 그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 관계가 존재한다. 박제상의 인물형상이 유교 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놀지왕과 박제상 처의 역할이 부각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忠’이라는 덕목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보다는 烈 이나 悌’라는 덕목과 결합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박제상 이야기를 규범화된 유교 윤리인 忠, 烈, 悌를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로 받아들인 것이며,

15) 안정복, 『국역 동사강목』I (민족문화추진회, 1977) 402면 참조.

16) 이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附記되어 있다. “鳴護島口右岸, 地名博多. 鄭圃隱, 奉使時, 遊賞處. 集中霸家臺, 卽此地云. 又云新羅朴堤上, 死節于其下七里灘. 而申泛翁, 亦奉使到此云.”

17) 尹頰之 또한 다음과 같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博多浦, 卽朴堤上 就義處, 鄭圃隱 駐節地. 感舊漫筆. 堤上成仁地 / 烏川擁節過 / 高忠懸日月 / 遺跡有江湖 / 島較田橫勝 / 山方峴首多 / 襟期知不隔 / 撫古一長歌”

그 결과 忠, 烈, 悌라는 유교 윤리는 어느 하나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는 숲의 세 다리처럼 긴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15세기의 인물인 김종직부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을 살다간 鄭在巒¹⁸⁾에 이르기까지 수용 방식에 있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3. 희생을 강요받는 민중의 형상 - 傳說

필자는 『한국구비문학대계』를 검토하여 총 9편의 박제상 관련 작품을 찾을 수 있었다. 각 편은 다음과 같다.¹⁹⁾

- ① <치술령>, 『한국구비문학대계』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31면.
- ② <박제상 부인과 치술령>, 위의 책, 283~285면.
- ③ <치술령과 박제상 부인>, 위의 책, 318~320면.
- ④ <박제상 부인과 망부석>, 위의 책, 324~325면.
- ⑤ <박제상 부인과 망부>, 위의 책, 342~343면.
- ⑥ <치술령 망부석>, 『한국구비문학대계』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88~94면.²⁰⁾

18) 정재혁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堤上還二質 / 一死何烈烈 / 寧爲鷄林豚 / 不受倭國祿 / 叢鐵若平地 / 剝脚猶直立 / 萬古鴉述嶺 / 磊磊望夫石” 정재혁과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최두식, 『韓國詠史文學研究』(태학사, 1987) 163면 참조.

19) 표제가 붙은 것만 계산하면 8편이다. ⑧과 ⑨는 하나의 표제 아래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⑧에서는 대마도가 신라 땅으로, 박제상이 이곳(한반도)에서 살기 어려워서 대마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⑨에서는 박제상이 대마도에 사신의 자격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 ⑥은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며,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기록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구술자가 이들 史書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술자가 직접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읽었거나 이와 유사한 문헌 기록을 읽은 경

- ⑦ <박제상이 일본으로 떠난 딱방우>, 위의 책, 329~ 330면.
- ⑧ <치술령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265~ 267면.
- ⑨ <치술령 전설>, 위의 책, 265~ 267면.

지금부터 傳説에서는 박제상 이야기가 어떻게 변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하자. 이들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박제상이 倭에서 고문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박제상’하면 患을 떠올리고, 이는 대부분 그가 고문 받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아마도 박제상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 장면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둘째, 박제상이 왜에 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왕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갔다는 ⑦과 사신으로 갔다는 ⑨를 제외하면, 박제상이 왜에 가는 이유는 원래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다.

셋째, 고구려에서의 행적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박제상은 王弟를 구하기 위해서 倭 이외에 고구려에도 갔었다. 그 곳에서 왕을 설득해서 왕제를 데려왔건, 속임수를 써서 데려왔건, 박제상이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박제상 이야기의 중심인 患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전설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다.²¹⁾

이상과 같이 전설에서의 박제상 이야기는 그의 患이 그다지 중요하게

힘을 토대로 구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⑥은 구비문학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가치는 없다고 판단되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1) 물론 세 번째의 특징을 이들 전설이 박제상 부인이 중심이 된 지명 전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세 번째 특징 또한 첫째, 둘째 특징과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변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자.

② 어 참 박제상이라 카는 사람이 돌개이 있었그던. 있었는데, 장개를 가가 주고 열라(아기도) 하나도 안 놓고, 양반이 일본을 갔부고 하도 하도 엔(안)와 하도 하도 에이 와 갖고 고대 고대만 하고,

위의 작품에서는 박제상이 일본에 간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가를 가서 아기도 낳지 않고 일본으로 떠났다는 데에서 보듯, 그가 아주 급하게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自意가 아니라 他意에 의한 것임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③ 저 영해 무안 박씨가 마이 사는데, 무안 박씨가 박제상카는 이가, 그거 야매 전설 이야기 다 들었을까라. 그래 그 시(時) 대마도 섬을 지키로 갔는데, 그 전에 그 섬이 우리 나라 섬이더랍니다. 그렇기 있다가, 거 가 수 달로 살 았그던. 지켰단 말이다. 거기 신라 때라, 임나(임란)이 아니고 신라 때라.

그래가 내외가, 말은 첫날밤에 갈리는데, 분대이(바빠) 가자 캐노이 말이지, 그래노이, 심지어 그 부인이 화북단장을, 이전쯤 언지 찍고 분 바르고 이래가 있었그던. 다 씻고 들어 와서,

“다시 보고 가소. 이 환향(화장)해가 일 때(있을 때) 보고 가서 이후에 평복으로 있을 때 보면 모럴 끼라고”

그래 턱 인제, 다시 보고 가소 하는데, 그래 박제상이 떠날 때

“내 그 저 대마도 섬을 가는데, 대마도 섬이 보이는 데서 날로 망향을 해라. 보는데, 대마도 섬에 흑우(黑雨)이 덮혔기던 날 죽은 줄 알아라.”

⑤ 그 인제 그 일이, 그 영해 무안 박씨네. 그 박제상 처음 장개 가(가서) 첫날 밤인데. 어 군대에 오라 칸단 말이라. 그래가 그 때는 머 훈련을 받고 (받은) 어디 군대가 있나? 그저 머 급하만 그저 머 머. 아무 끼나 델고 가는 기라. 어, 이래 가는데.

그래가 그 내외가 참 그 동방화축에 이래 첫날밤 잘라꼬 이래 들았았는데. 광주에 군에 가자 카 이케. 그래 그 부인이 나가서 세수를 세로하고 말이지.

다 지어부고, 화복단장에다가 아주 분세수에다가 연지를 찍고 이래가 들았었다가, 그걸 마강 씻고 평복을 입고 들왔어. 들와가,

“다시 보고 가소. 환향(화장) 해가 있을 때에 보고 가서, 만약 평복을 입고 해가 있으면 알 수가 없을 터이니, 평복을 해가 있는 걸 보고 가소”

그랬어. 그래가 이별로 하는데, 그래 그 박제사이 그 때야 어에 된지, 신라 때 대마도가 우리 나라 때이다. 대마도. 그래가 대마도에 인제 수달 살로 가는데. 그 인제 지경 지키로, 인제 삼팔선 지경 모야으로 지키로 가는데, 그래 가만서.

“대마도 산 보이는 데 가가 날로 생각커덜랑 망부를 해라. 봐라. 만약 그 산에 흑우이 덮혔으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이 그를 보라.”

이카고 그만 갔봤어.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③과 ⑤에서는 박제상이 신흠 첫날 밤 군대에 징집되어 대마도로 수자리 살러 가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다. 일반 민중들에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에 가 수자리 살도록 징집 되는 것이 큰 고난이었음은 인용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답하면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나 자신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기에 구름을 보고 생사를 확인하라는 제상의 유언 같은 당부 등이 그것이다. 또한 남편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자 화장을 지우며 자신의 본 얼굴을 보고 가라는 제상 처의 말에서는 생사는 물론이고 인제 돌아올 지조차 기약할 수 없는 곳으로 남편을 보내야 하는 아내의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⑧ 참 한국서, 요새 말로 조선서는 마 뭐 두서가 없어가 난리로 지기고 할 때, 임금이 쫓기 드가가 쫓기 나오고 할 그 시대에, 참 저게 그 무슨 대사라 캬노? 그 대사가 여어 문 건더가 내외를(부인을) 보 두고 저 일본 대마도로 갔다 카데. 대마도가 우리 조선땅 아입니꺼? 지금 일본땅 됐읍니꺼? 대마도로 건거 가면서, 이런 전설이 있대. 대마도로 건거 가면서는

“도저히 나는 여어서 건딜 수가 없으이.”

처를 보고, 처를 보고,

“나는 가서 성공을 하며 돌아올 끼고, 성공을 못 하면 내가 영원히 다시는 올 수가 없으니, 내가 가서, 내가 가는 데가 어텐고 하이, 대마도로 건너 가이, 대마도로 가가지고, 구름이 떠 가지고 누런 구름이 떠올라 오거등 날 산 줄 알고, 그라이며 죽은 줄 아라꼬.”

③과 ⑤에서와는 달리, ⑧에서는 박제상이 일본으로 간 이유가 문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어 몬 견더가 내외를 놔 두고 저 일본 대마도로 갔다 카테” 또는 “도저히 나는 여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극심한 고생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이처럼 전설에서의 ‘박제상 이야기’는 애초에 박제상이 왜에 갔던 이유는 중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개되었다.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시 등에서 王弟를 구하기 위해 고구려와 왜에 갔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애초에 박제상 이야기에는 이와 같은 변개가 가능할 수 있는 요소가 내재해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검토해 보자.

신라로 돌아오자, 대왕이 기뻐하고 위로하며 말하기를 “내가 두 아우를 생 각컨대 좌우의 팔과 같거늘, 지금은 단지 한쪽 팔만 얻었으니 어찌할까?” 하였다. (중략) 제상이 죽음으로 맹세하고는 처자도 만나지 않고 울포로 가서 배를 타고 왜를 향해 갔다. 그 처가 이 말을 듣고 포구까지 달려갔다. 배를 바라보며 크게 통곡하여 말하기를 “무사히 다녀오세요” 라고 하였다. 제상이 고개를 돌려 말하기를 “내가 임금의 명을 받고 적국에 들어가니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요.” 라고 하였다.²³⁾ (『三國史記』 「朴提上傳」)

22) 이 밖에 ①과 ④에는 남편이 떠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그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23) 及歸國, 大王喜慰曰 “我念二弟, 如左右臂, 今只得一臂, 奈何?” 提上 報曰 “臣雖奴才, 既以身許國, 終不辱命. 然, 高句麗大國, 王亦賢君, 是故, 臣得以一言悟之.”

왕이 보해를 보매 더욱 미해를 생각하여 한편으론 기뻐하고, 한편으로 슬퍼하였다. 눈물을 흘리고 좌우를 보며 말하기를 “뚝에 팔이 하나인 듯, 얼굴에 눈이 하나인 듯하구나. 비록 하나를 얻었으나, 하나는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하였다. 이 때 제상이 이 말을 듣고 재배하고 조정을 나와 말을 달려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울포로 갔다. 그 처가 이 말을 듣고 말을 달려 울포에 다다랐으나 이미 남편은 배 위에 있었다. 처가 간절히 부르니, 제상은 다만 손을 흔들고 배를 멈추지 않았다.²⁴⁾ (『三國遺事』「奈勿王 金堦上」)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눌지왕은 박제상이 고구려에서 돌아오자마자 왜에 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고구려에 다녀온 박제상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어찌하면 좋은가?” 또는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왕의 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명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박제상은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르지도 못하고, 처자도 만나지 못한 채 곧장 왜를 향해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박제상의 모습은 이른바 ‘先公後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배층에게 있어서 권장해야 할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이다.²⁵⁾ 반면 일반 민중에게는 눌지왕의 이러한 요구가 지나친 것으로, 공적인 일이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결국 이러한 변개는 전설을 만들어낸 민중에게 있어서 박제상의 충이 전

若倭人，不可以口舌諭，當以詐謀，可使王子歸來。臣適彼，則請以背國論使彼聞之。”乃以死自誓，不見妻子，抵栗浦，汎舟向倭。其妻聞之，奔至浦口，望舟大哭曰“好歸來。”堦上回顧曰“我將命入敵國，爾莫作再見期。”

24) 王既見寶海，益思美海，一欣一悲。垂淚而謂左右曰“如一身有一臂，一面一眼。雖得一而亡一，何敢不痛乎?”時 堦上聞此言，再拜辭朝而騎馬，不入家而行，直至於栗浦之濱。其妻聞之，走馬追至栗浦，見其夫已在舡上矣。妻呼之切懇，堦上但搖手而不駐。

25) 박제상의 이러한 모습은 治水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을 그냥 지나쳤다는 禹임금, 급히 전장에 나가느라고 집 앞을 그냥 지나쳤다는 金유신의 모습과 유사하다.

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에서의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행적과 왜왕의 고문에 당당히 맞서는 장면은 충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지배층에 의한 강요된 희생으로 보였을 것이다. 때문에 박제상이 왜로 가는 이유가 아예 누락되거나, 심지어 결혼 첫날밤 군대에 징집되어 수자리 살러 갔다는 식의 변개가 생겨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민중들은 지배층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박제상에게 투사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 태도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시 등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박제상 이야기의 의미를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국권 수호의 상징 - 애국계몽기 가사

애국계몽기²⁶⁾에 창작된 많은 가사 작품들은 주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 사회를 계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근대계몽기 시가자료집』 I ~ III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에 수록된 『대한매일신보』 소재 가사 작품들을 검토하여 관련된 3편의 작품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작

26) 19세기 말에서 1910년 국권이 상실되기까지의 시기를 어떻게 명명하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 좀더 정치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일단 본고에서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를 애국계몽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효현, 『애국계몽기 고전소설의 역사현실 대응』, 『韓國古典小說史研究』(고려대 출판부, 2002), 525~526면 참조.

품들에서는 어떤 변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太白山 檀木下에 始祖단君 現出호샤 三韓英雄 召集하야 이 時局이 危急호
니 保護方針 講究호다

乙支문德 왓나나 隋양帝의 百萬雄兵 一朝에 掃蕩手段으로 靑邱山河 三千
리가 危如一髮 擾擾호니 三千餘載 傳來基業 扶護經綸 責任커다

金庾信이 왓나나 中岳山 石窟中에 爲國禱天 忠心으로 軍用鐵道 荒蕪地에
失巢彷徨 呼哭호는 許多蒼生 哀憐호니 同胞救濟 責任커다

庚黔弼이 왓나나 朝廷制度 草創時에 整頓내治 規模로다 隣邦借來 더 巨款
은 報償方針 全無하고 一國金融 枯渴호니 財政整理 責任커다

李存吾 왓나나 疾惡如讐 一片忠은 鳳鳴朝陽 이 아닌가 七大臣이 弄權호야
國家權利 讓渡호고 地位鞏固 主旋하야 國家禍色 追頭호니 奸臣叱退 責任커
다

金德齡이 왓나나 無等山이 鍾靈호야 徒手搏虎 저 壯拳아 魚頭鬼面 一進會
가 宣言書 自衛團에 靈國病民 加痛호니 尙鬼逐送 責任커다

리舜臣이 왓나나 鐵甲船을 發明하니 海外風浪 不畏로다 舟車相通 列強國
에 平和條約 잇것만은 任之他手 籠絡호야 不得自由 屈伸호니 國權恢復 責
任커다

郭再祐 왓나나 逐倭如獐 凜凜氣는 紅衣將軍 네 아닌가 尙鬼魁首 渡日호야
百方奸計 要功次로 大禍胎을 釀成호니 凶物掃除 責任커다

박堤上이 왓나나 鷄林狗屍 寧爲언덩 日本臣民 不願호고 炮烙不屈 貞節이
라 日兵의게 通詞되여 睚眦之怨 必報호를 제 義兵于連 指囑호야 無辜良民 殺
害호니 惡物懲戒 責任커다

인용한 작품은 1908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英雄會
議>이다. 작자는 시국이 위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역사상의 영웅들을 소집하여 이들에게 정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박제상은 忠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서의 忠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시에서 그려진 忠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시에서의 忠이 임금이라는 일개인을

향한 것이었다면,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박제상의 씨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뀌었음은 다음의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汨羅水로 술을 빚고 首陽薇로 안주하야 忠臣烈士 招魂한다 晋洲妓生 論介
식혀 술을 붓고 平壤妓生 桂月香이 식혀 勸酒歌를 부르니 잡으시오 잡으시
오 이술 혼잔 잡으시오

第一盃는 向日花가 피었스니 一片丹忠 빚치는다 異域酷刑 不畏하고 罵不
絶口 秋霜갓다 繼斷無他 더 貞忠이 至身死 하얏고나 朴堤上시의 드리고

第二盃는 國亡君辱 ्ह는 日에 죽지 안코 무엇 할가 向北屈膝 深恥 하야 一
椎下에 孤節이라 善竹橋에 나문 피는 至今까지 斑斑 하다 鄭浦隱 씨 드리고

第三盃는 十萬大兵 渡航初에 一身對敵 하얏고나 與日爭光 忠奮志는 號令
소리 震動한다 背後霜筵 冷視하고 從容就義 하얏스니 宋泉谷의 드리고

第四盃는 七百義士 召集하야 草野間에 奮起 하니 所向無敵 白衣兵이 錦山
風塵 不幸 하다 田橫島를 指點 하니 樹亦同死 悲愴 일세 趙重峰의 드리고

第五盃는 측石樓를 바라보니 三壯士가 어더 갓나 同心同力 더 戰士는 六
萬陣勢 堂堂 하다 腥塵血雨 幾千年에 英雄淚를 難禁이라 金健齋의 드리고

第六盃는 海底龜船 册造 하니 神出鬼沒 用兵이라 百戰百勝 더 雄韜는 東洋
三國 第一일세 閔山島 一片月이 萬古忠節 놓혔고나 리忠武의 드리고

第七盃는 國權墜落 ्ह던 날에 滿腔熱血 었지 하나 一刀下에 더 忠貞이 二
千萬衆 代表로다 樹血竹 青青하니 感義所生 이 아인가 閔忠貞의 드리고

第八盃는 編伍中에 잇던 몸이 殺身報國 하얏고나 炳日丹忠 놓허스니 爲國
之心 貴賤업다 幾百年後 人物이라 平壤江山 特色일세 金奉학의 드리고

第九盃는 直士抗章 扶危 하니 于彼朝陽 鳳이 운다 對馬島가 어 디리니 不食
周粟 同節이라 千秋高義 屹立 하니 愛國思想 뿐이로다 崔勉庵의 드리고

第十盃는 萬國平和 會議席에 自國危機 說寃다가 快豁一刀 剖腹하야 一灑
血色 新鮮 하다 青天白日 丈夫志는 大韓天地 生色이라 리儁의 드리고

第十一盃는 危急局勢 痛憤 하야 二尺刀로 立節하니 一隊將卒 激義 하야 不
顧成敗 奮起로다 一生志氣 확鑠 하니 더 宿將이 可惜 하다 朴昇煥시의 드리고

나문 술이 얼마런고 二千萬 同胞에게 面面히 勸勸하야 祖國精神을 喚起하
세

위의 작품은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20일자에 실린 <古今忠魂>이다.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앞서 인용한 작품과 유사한데, 전체 내용과 “二千万 同胞에게 面面히 勸勸하여 祖國精神을 喚起하세”라는 구절이 보여주고 있듯이, 박제상의 뜻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는 박제상 이야기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박제상이 인질로 끌려간 王弟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일과 박제상 부인의 사연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오로지 그가 의연히 대처한 대상이 ‘倭’라는 사실만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제의 침략에 의한 국권 상실의 위기 앞에서는, 그것이 비록 규범화된 유교 윤리인 憐와 烈에 바탕을 두고 있더라도, 형제간의 우애나 부부간의 사랑과 같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는 절실하게 다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⁷⁾

또 다른 것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작품은 물론이고, 1909년 8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擊劍歌>라는 작품에는 “이 니 쿨을 번뜻 들어 더 倭船을 覆破호고”라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좀 후대이긴 하지만 1916년 7월 27일자 『東海鳴藻』라는 신문의 ‘넷어룬의 말슴’이란 난(欄)에는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박제상의 발언 끝에 “적들 이 말삼을 들으면 응당니 짬이 흘을지로다”는 논평을 해 놓았다.²⁸⁾ 이러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한시나 전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

27) 김홍규는 “國運의 위기에 대응하는 계몽 이념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하면서 ‘일상적 삶의 개별성·구체성’보다는 거시적이고 집단적인 가치가 강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홍규, 「朝鮮 後期와 愛國 啓蒙期 批評의 人情物態論」,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고려대 출판부, 2002), 256면 참조.

28) 『한국근대문학연구자료집』10, 삼문사, 1988. 356면.

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것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위의 두 가지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2장에서 한시의 경우 그 시선이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애국계몽기 가사의 경우는 그 시선이 철저하게 외부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사회 현실인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의 위기로 시선의 방향이 바뀐 것이며, 그 결과 忠의 의미가 변화된 것이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富國強兵과 自主獨立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적 통일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 요구된 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忠君愛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봉건적 군신 사이의 주종의 은의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忠’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²⁹⁾

결국 박제상 이야기는 忠의 대상을 봉건 군주에서 국가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시선을 구체적인 현실을 향해 집중함으로써 민족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제로부터 국권을 지키는 한편 근대적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또한 이와 같은 국가의식의 강조는 표현상의 특징과도 관련이 깊은

29)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忠君愛國’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김영작, 『한말 내서 널리 읽기 - 사상과 현실』(청계, 1989), 129~136면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30) 이 작품들이 근대적 민족의식에 기반한 국민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同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원래 ‘동포’는 같은 부모 소생의 형제·자매를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가 언제부터 자신과 같은 민족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는 듯이 보이며 이 또한 근대적 민족의식의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작품들은 박제상을 비장한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박제상과 함께 언급된 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영웅회의>의 인물들은, 이준오를 제외하면, 모두 武將 또는 義兵將이며, <고금충혼>에서는 술한 피의 수사학³¹⁾이 등장한다. <고금충혼>의 밑줄 친 부분이 이러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快豁一刀 剖腹하여 一灑血色 新鮮 하다”에서는 이러한 비장미가 정점에 이른다. 결국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이들은 모두 국가를 희생한 일종의 국가영웅으로 그려져 국민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여러 영웅들의 나열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동일시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독자들은 그 영웅들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 자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애국계몽기 가사에서 눌지왕이나 박제상 처에 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유를 앞에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눌지왕과 박제상 처가 그려냈던 형제애나 부부애는 국가에 대한 역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二千万 同胞의게 面面히 勸勸 하여 祖國精神 을 喚起”하는 소재로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있던 ‘박제상 이야기’가 후대에 어떤 형태로 변개되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박제상이라는 인물이 한시에서는 규범화된 유교 윤리의 담지자로, 전설에서는 희생을 강요받는 민중의 형상으로, 애국계몽기 가사에서는 국권

31) 고미숙에 의하면 애국계몽기에는 극단적인 표현이 대거 등장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책세상, 2001)의 ‘제1장 민족 또는 새로운 초월자의 출현’ 참조.

수호의 상징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제상 이야기’의 여타 인물과 특정 부분의 강조 또는 탈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분석이 애초에 한시, 전설, 애국계몽기 가사라는 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즉, 굳이 ‘박제상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지 않더라도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가 이러한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대치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요컨대 박제상이 유교 윤리의 담지자로, 희생을 강요받는 민중의 형상으로, 국권 수호의 상징으로 변용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본고가 이런 측면에서 작지만 일정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루어야 할 자료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까닭에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한시의 경우 작자의 성향과 연계하여 각각의 작품들을 꼼꼼히 분석해야 하며, 애국계몽기 가사의 경우 좀더 폭넓게 당시의 정치적·사회적·문학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공부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資料

『三國史記』, 『朴堤上傳』
『三國遺事』, 『奈勿王 金堤上』
金圭泰, 『大東樂府』(정구복 편, 『海東樂府集成』3, 여강출판사, 1988.)
金世濂, 『東溟集』(『韓國文集叢刊』95, 민족문화추진회, 1988.)
金宗直, 『佔畢齋集』(『韓國文集叢刊』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成汝信, 『浮查集』(『韓國文集叢刊』57, 민족문화추진회, 1988.)
沈光世, 『休翁集』(『韓國文集叢刊』84, 민족문화추진회, 1988.)
梁進永, 『晚義集』(『漢文樂府·詞 資料集成』5, 계명문화사, 1988.)
吳光運, 『藥山漫稿』(『韓國文集叢刊』210, 민족문화추진회, 1998.)
尹順之, 『萍溟齋詩集』(『韓國文集叢刊』94, 민족문화추진회, 1988.)
李 瀾, 『星湖先生文集』(『韓國歷代文集叢書』267, 景仁文化社, 1993.)
李匡師, 『圓嶠集』(『韓國文集叢刊』221, 민족문화추진회, 1999.)
李令翊, 『信齋集』(『韓國文集叢刊』252, 민족문화추진회, 2000.)
李福休, 『海東樂府』(정구복 편, 『海東樂府集成』2, 여강출판사, 1988.)
李裕元, 『海東樂府』(정구복 편, 『海東樂府集成』3, 여강출판사, 1988.)
李宜顯, 『陶谷集』(『韓國文集叢刊』180, 민족문화추진회, 1996.)
李學達, 『嶺南樂府』(정구복 편, 『海東樂府集成』2, 여강출판사, 1988.)
李衡祥, 『瓶窩集』(『韓國文集叢刊』164, 민족문화추진회, 1996.)
任相元, 『恬軒集』(『韓國文集叢刊』148, 민족문화추진회, 1995.)
趙 綱, 『龍洲遺稿』(『韓國文集叢刊』90, 민족문화추진회, 1988.)
金壽民, 『箕東樂府』(申章燮 註解, 『韓國 箕東樂府 註解』, 국학자료원, 1997.)
趙宗鉉, 『天隱稿』(『漢文樂府·詞 資料集成』3, 계명문화사, 1988.)
崔 溥, 『錦南集』(『韓國文集叢刊』16, 민족문화추진회, 1988.)
黃 痺, 『漫浪集』(『韓國文集叢刊』103, 민족문화추진회, 1988.)
『歌謠樂府』(『漢文樂府·詞 資料集成』7, 계명문화사, 1988.)
安鼎福, 『국역 동사강목』I, 민족문화추진회, 1977.
『한국구비문학대계』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국구비문학대계』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국근대문학연구자료집』10, 삼문사, 1988.
강명관·고미숙 편, 『근대계몽기 시가자료집』I~III,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論著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 사상과 현실』, 청계, 1989.
- 김흥규, 「朝鮮 後期와 愛國 啓蒙期 批評의 人情物態論」,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 출판부, 2002.
- 엄기영, 「『三國史記』·『三國遺事』 所載 ‘朴堦上 이야기’의 比較 考察」,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 장효현, 「애국계몽기 고전소설의 역사현실 대응」, 『韓國古典小說史研究』, 고려대 출판부, 2002.
- 최두식, 『韓國詠史文學研究』, 태학사, 1987.

